

미래 지식재산 협력의 중심은 사용자!

-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(IP5) 청장회의, 중국 텐진에서 개최(5.28)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5월 28일(현지시간) 중국 텐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(IP5)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·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. 특히, 산업계의 요구가 큰 ‘글로벌 특허양도*’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.

* 글로벌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(assignment)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선진 5개 특허청 국가 모두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

특히,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‘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’으로,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.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(’21년말 6조원 → ’25년말 12조원)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, 지식재산 가치 평가,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하였다.

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’ 보고서를 발표하였다. 동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정책,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,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,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”며 “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(IP5) 청장회의 사진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이승관 (042-481-5063)
		담당자	서기관	류정현 (042-481-3993)
			사무관	조아라 (042-481-5071)



사진 1: 김완기 특허청장(왼쪽에서 4번째)이 '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(IP5) 청장회의'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.



사진 2: 김완기 특허청장이 '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(IP5) 청장회의'에서 발언하고 있다.